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딤펴전 1:12-17)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딤펴전 1:12-17)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 [16] 그러나 내가 공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딤펴전 1:12-17)

나를 능하게 하실
(능력과 지혜를 덧입히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훈**을 입어야 한다.

- 구름기둥이 히브리인들의 원정(遠征)에 앞장을 섰듯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원정(遠程)에 앞장을 서야 목표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고, 목적인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눈에 안보임)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의
 그림자와
 모형

전사들의 결투(화가: Andokides, 출처: vulci, 530 BC, 소장: 루브르)
 지혜와 용맹과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응원하는 조축의 그리스 전사
 (아킬레우스?)의 승리가 예상된다. 우측 트로이 전사(헥토르?) 곁에는
 저승사자인 헤르메스가 패자의 혼령을 음부로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다.
 신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자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리스의 한 공방화가
 (Andokides)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딤후 1:12, 빌 4:13).



고난(진노의 자식) 의 운명을 타고난 헤라클레스에게

돕는 신:
아테나
(공물을 입음)

괴롭히는 신:
헤라

헤라클레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520 BC, Louvre)
헤라클레스를 음부로 안내한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뒤에서
응원하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의 지지에 힘입어
음부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사로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델포이 트라이포드(삼각대)를 두고 운명의 신 아폴론과 다투는 헤라클레스.
왼쪽에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응원하고, 오른쪽의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을
성원하고 있다 <510~500BC, 리브르 박물관>. 아폴론은 예언의 신이자
인간의 운명을 델포이 신전에 맡긴 인물이다. 헤라클레스의 운명도 아폴론의
신탁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 신탁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푸티아라
불리는 여사제 제니가 이 트라이포드(삼각대) 위에 앉아야 가능해진다.
헤라클레스가 트라이포드를 차지하려고 하고, 아폴론이 저지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트라이포드는 운명의 상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에게 짐
지어진 불행한 운명을 바꾸려고 했고, 아폴론은 이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운명에 굴하지 않는 헤라클레스를 응원하고 있다.

자신의
타고난
불운한
운명을
바꾸려고
운명의 신
아폴론과
다투는
진노의 자식
알키데스
(헤라클레스)



헤라의
과수원을
지키는
용(라돈)을
때려눕히고
불멸의
황금사과를
손에 넣은
헤라클레스
(신들의 대전에
오름)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리물 라돈(용)을 무찌르고 쟁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와 비교), 왼손에 올림프 몽둥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쳐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아테나의
금홀을 입은
알키데스가
(헤라클레스)
아테나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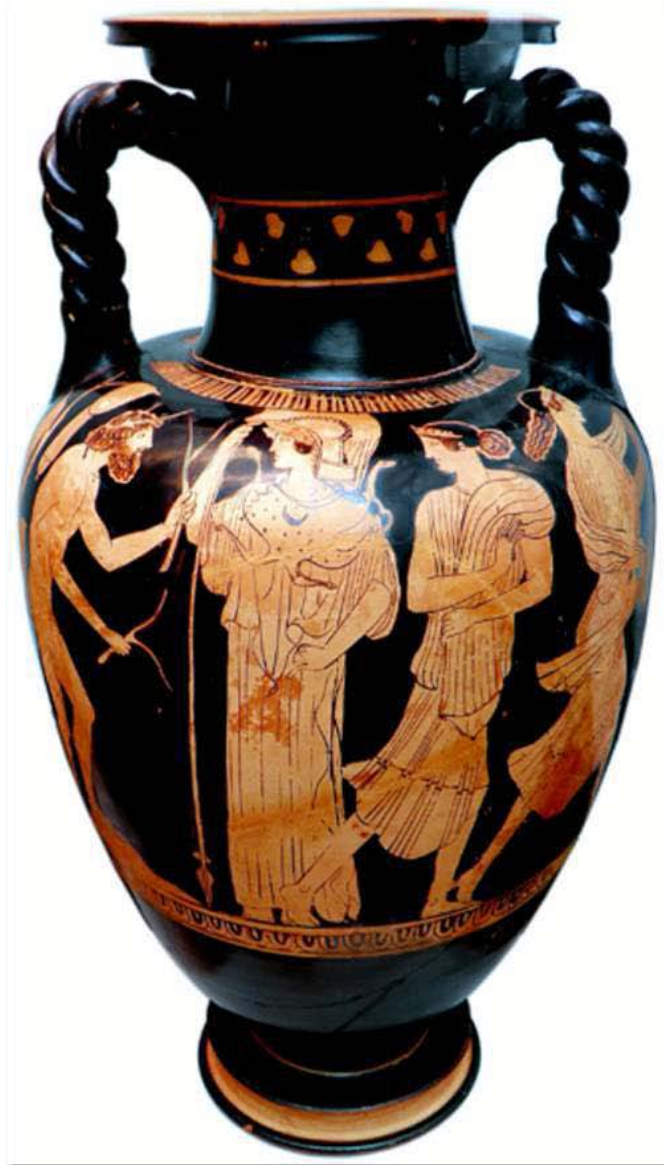
세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고 암초(세이렌) 섬을 무사히 통과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Stamnos, ca. 480-470 BC. 대영박물관)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해서
목마게척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 했다. 수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이 담담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돛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암초)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모습이다. 스타모스는 암포라와 크라테르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항아리였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그리스 우표, 1983)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하여
 모마게척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 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걸을 지켜줬기 때문이었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이 땀땀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돛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모습이다.



파란만장한 20년 유랑자 오디세우스에게

돕는 신:
아테나
(공물을 입음)

괴롭히는 신:
포세이돈(바다)

오디세우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440 BC, Vulci)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와 알키누스의 딸 나우시카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 손에 쥔 나뭇가지들은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가 당한 처지를 상징한다. 이로써 오디세
우스는 나우시카아의 도움으로 20년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된다.



폭풍에 배와 선원들을 모두 잃고 낯선 해변에 떠밀려온 오디세우스가 해변에서 빨래하려고 나온 '나우시카아'와 조우하는 장면. 나우시카아가 시녀들과 함께 놀라서 도망하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음을 얼굴이 보여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테나가 나우시카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트로이 멸망 때 아버지 앙키세스를 들쳐 멘 아이네아스가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고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하는 모습(나폴리).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7년의 바다유랑 끝에 수호신들이 약속한 새 땅 로마에 이르러 건국의 기초를 쌓는다<아이네이스>.
***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여호수아, 긴 세대 가장의 든직한 모습.



로마 건국의 아버지 아이네아스에게

돕는 신: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괴롭히는 신:
헤라



아테나와 페르세우스를 그린 시툴라(양동이, 370BC, Puglia)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그가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도록
방패와 단칼을 건네고 있고, 페르세우스는 창과 헤르메스의
날개달린 부츠와 하데스의 모자(CAP)로 무장하고 있다.

지혜와 능력의
여신 아테나가
(눈에 보이지 않음)
메두사의 목을
베어 가져올 수
있도록
페르세우스에게
능력(도구, 재능)을
덧입히는 모습



영웅 벨레로폰에게

돕는 신:
아테나

장애물:
내면의 적
(교만)





아르고호 원정대장 이아손(야손)에게

돕는 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장해물:
쉽플레가데스의
역풍과 물보라
금양모피를
지키는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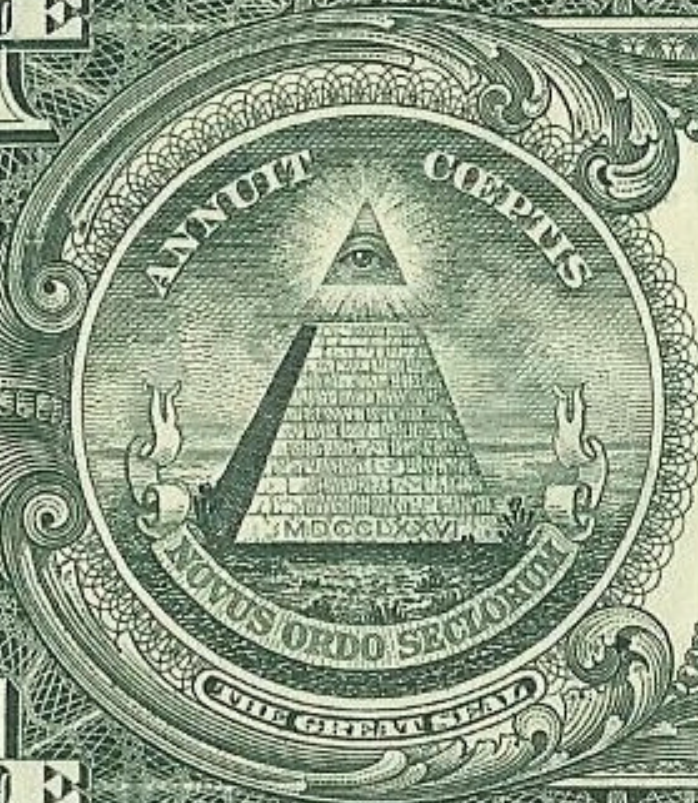


영웅 이아손, 용과 금양모피, 아테나와 지혜의 상징 볼베베리(kylix, 5BC)
금양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아손은 용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용은 이아손을
삼키지만 아테나 때문에 이아손을 게워내는 모습과 나무에 걸린 금양
모피를 좌측에 그렸고, 머리에 투구를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지혜의 상징인
볼베베리를 쥐는 여신 아테나를 우측에 그렸다. 이아손의 수호신은 헤라이다.
헤라의 부탁으로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이아손을 종종 돕는다. 오비디우스는
"금양모피조차도 손에 넣는 수고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1
ONE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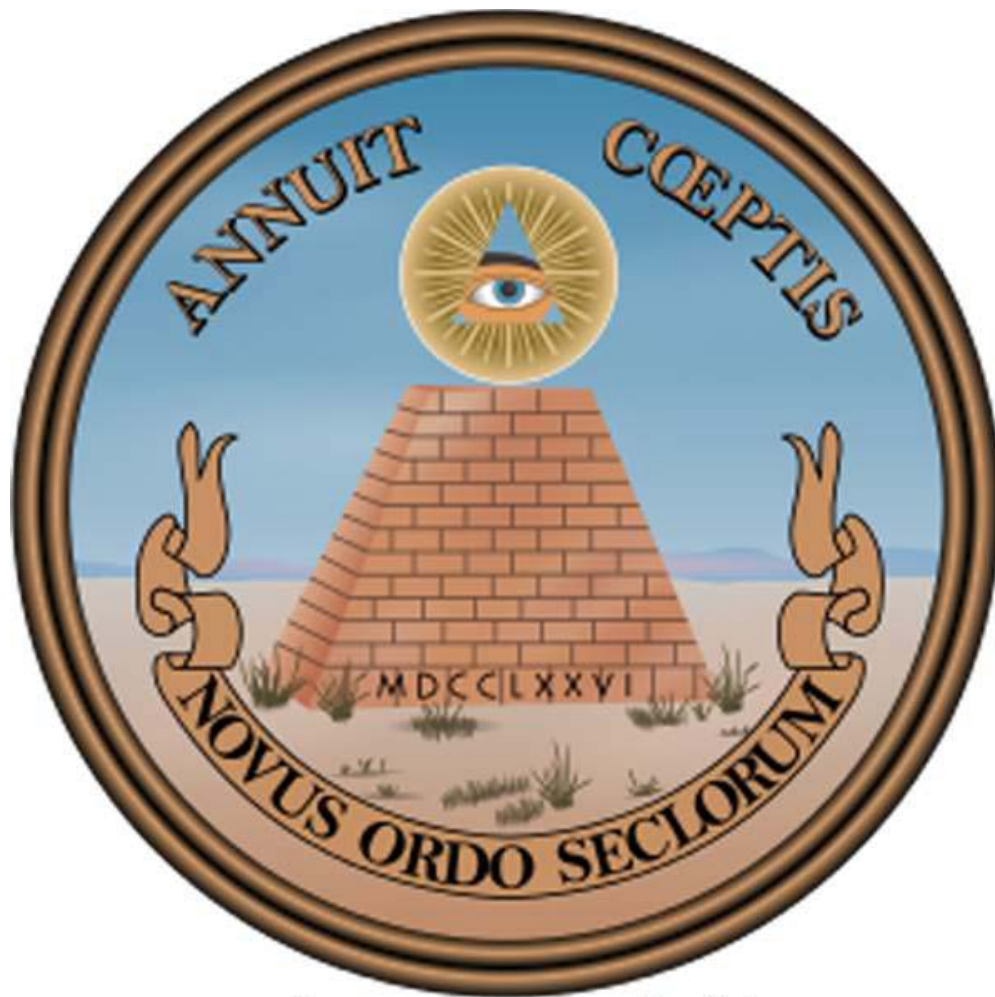
IN GOD WE TRUST



ONE

1
ONE

ONE DOLLAR



1달러 지폐에 그려진 미국의 국장

통일, 자유, 독립, 개혁정신의 상징으로서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 (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혁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리는 필리피데스(Philippides,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 군사였던
필리피데스가 무장한 채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

“ΧΑΙΡΕΤΕ ΝΙΚΩΜΕΝ”(카이레테 니코멘).

‘복음’이란 뜻의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이 승전보(‘카이레테
니코멘’)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